

##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九)

申南澈

以上과 가티 主觀은 客觀에 對한 制約者인 同時에 客觀은 또한 主觀에 對한 制約者이다. 그러면 한 개의 事物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할 때도 우리는 늘 우리의 본 中天의 滿月이고 마당에 있는 돌알이라고 對答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그것이 『어찌케 해서』 『그것이 무엇- 中天의 滿月이고 마당 돌알 -이냐?』라고 問題를 提出할 때 一個의 事物에 對한 規定性은 完全히 決定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問題의 緊要한 重點은 언제나 不動이다. 烈言하면 諸 問題를 가장 簡明하게 『決코 粗한 簡明이 아니라 複雜을 具有하면서도 그것이 外部的 關係를 明白케 하는 簡明이다.』 規定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이냐?』(was)이고 『어찌케 해서』는(wie) 아니다. 왜 그러냐하면 wie는 언제나 主觀的이라고 볼 수 있다. 卽 wie는 was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was를 把握하는 한 過程이고 手段이고 方法이다. was를 前提하지 않는 wie 更言하면 wie만으로서의 wie - 獨立한 wie는 自體로서의 根據는 가질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現實的 意義에 있어서 零임으로 이다. wie의 世界는 方法論의 世界이다. 方法論의 世界는 主觀의 世界이다.

한 개의 事象을 보고 그것을 일즉히 海岸에서 본 仲秋의 滿月로서 理解하거나 『안테나』 우에 걸친 사랑하는 『메첸』과 『아스팔트』를 散步 할 때의 美感으로서의 夏日의 滿月로 把握하거나 如何튼 滿月이라는 was는 늘 同一한 積極的의 具體的 主語를 表明하는 것이나 仲秋의 海岸이라든가 사랑하는 『메첸』과의 鋪道 上의 散步라든가는 그로 하여금 一定한 對象인 滿月의 把握에 對한 wie로서의 述語에 지나지 못한다. 그 wie는 各人各樣일 것이다. 마당에서 혼자 구니는 한 개의 돌알을 보고 哀想에 사로잡히는 詩人도 있을 것이요. 어제 개울가에서 玉順이가 가지고 놀겠다고 가지고 온 것이라고 理解할 아이 보는 할머니도 있을 것이다. 어찌튼 wie는 was를 前提한 때에 비롯오 그 意義가 生할 것이다. 그와 가티 wie는 主觀의 世界이다.

이와 同時에 그 was는 또한 언제든지 一定한 wie를 通하여 理解될 것이니, wis의 內容이 變移됨을 許러 was의 主觀에 對한 形舞 업스며 또한 映畫의 進推 舞臺 위에 永遠히 認識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獨自的 發展이 잇서야 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一九一一年 伊太理 『지네스』社의 作品 『쿠오·바디스』의 一篇으로서 從來의 舞臺劇模倣的 境地에서 解放의 第一歩를 進出하였스니 同 映畫는 從來의 手法을 無視하고 映畫로서의 獨自的 特有한 表現方式을 應用하여 在來의 映畫와는 그 趨向을 달리한 것으로 實로 映畫劇史 上에 特記할만한 進出이었다. 이로서 映畫의 藝術的 進出을 創始되어 그의 特有한 表現形式은 進展되었다.

이러케하여 藝術의 領域으로 導人되는 過程의 映畫에 잇서서 舞臺劇의 臺詞가 動作으로서의 代하게 되고 攝影機의 位值의 變化로서 映畫의 場面이 表現的으로 映寫되었스며 場面の 連結과 構成을 意識的으로 組成하여 表現의 深刻化를 企圖하게 되었다.